

2021년 세월에 『여성문학연구』 54호를 출간하며

2년을 꼬박 일상이 되어버린 COVID-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비대면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좀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음을 실감하곤 한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들 중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포스트휴먼 같은 말들이 있다. 비대면 시대가 이런 말들을 좀 더 우리 사회 가까이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간의 축적된 담론과 현실의 변화를 토대로 가까운 미래로 다가온 포스트휴먼 시대, 또는 인공지능이 열어갈 시대에 여성문학 연구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사유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절감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의제를 적극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여성문학연구』 54호 특집 주제는 〈여성, 신체, 테크놀로지〉로 꾸려 보았다. 이번 특집 원고는 지난 10월 23일 온라인 학술회의로 열린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 중 일부로 구성되었다. 21세기 테크놀로지의 상황이 초래한 문제와 오랜 시간 여성의 신체에 새겨진 수난, 과학기술이 여성에게 부여한 새로운 가능성을 문학,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 세 편의 논문이 특집 지면에 실렸다.

이희은의 「데이터화 사회에 여성은 존재하는가?: 알고리즘 미디어와 불평등」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미디어 등 최근의 신기술 미디어에 대한 대중 담론이 기술공학과 정책 담론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자동화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은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속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자동화 미디어를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 담론과 불평등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특히 자동화 미디어가 젠더 불평등을 증폭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알고리즘 미디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인

간과 사회 기술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오자은의 「중산층 가정의 ‘기획’과 80년대 ‘워킹맘’의 경계」는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1980년대 소설에서 맞벌이 여성이 속한 중산층 가정의 테일러리즘 양상과 균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동역학을 살펴본다. 대졸 사무직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문제를 중산층 가정의 테일러리즘화의 과정과 그것이 초래하는 삶의 균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해석한 이 논문은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워킹맘’ 첫 세대가 등장했지만 아직 그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회의 혼란을 보여주는 소설로 새롭게 독해한다.

김윤정의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는 김초엽의 SF 소설 중 장애에 대한 확장적 사고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의 윤리성을 고찰하고 포스트휴먼 주체로서의 실천적 저항성과 전복성을 살펴본다. 이 논문은 김초엽의 소설을 포스트휴먼 시대의 장애를 재개념화하고 하이테크놀로지와 장애인의 관계를 재배치함으로써 윤리적 의미들을 생산해내는 소설로 의미화한다. 장애란 인식적 낙인에 따른 것이므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 없이는 완전한 기술도, 완전한 인간도 없다는 사실을 김초엽의 소설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이 논문의 포착이 인상적이다.

『여성문학연구』 54호에는 특집 논문 세 편 외에도 13편의 일반 논문이 함께 실렸다. 13편의 일반 논문은 고전문학, 근현대소설, 영화, 드라마, 케이팝, 번역, 독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흥미롭고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지닌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호도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닌 다양한 전공 영역의 논문들과 다양한 세대 연구자들의 논문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김민정의 「고전대하소설에 나타난 시비(侍婢)와 영웅적 여성인물의 관계성 고찰」은 고전대하소설에서 주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시비(侍婢)를 시비의 수행 공간과 주인의 존재 유무를 기준으로 내부형 조력자와 외부형 조력자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논문은 고전대하소설의 ‘영웅적 여성인물’이 여성 영웅소설의 여성영웅과는 달리 유교적 이념에 순응하는 보수적인 인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비들이 오히려 그들의 주인이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인의 비윤리적, 비여성적 행위를 대신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전대 하소설의 시비라는 인물 유형을 새롭게 읽을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논문이다.

서정자의 「식민지 근대도시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 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은 여성 작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박화성을 목포와의 관련 속에서 고찰한 논문이다. 목포의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과정에서 유이민들의 삶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박화성의 사회의식과 주체의식이 형성되었으리라는 전제 아래 이 논문은 박화성의 첫 소설 「추석전야」와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사회의식과 주체의식을 살펴본다. 대한제국의 칙령으로 개항을 한 도시라는 목포 특유의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박화성은 식민지 도시의 삶을 가까이서 체험하였고 초기 작품부터 지속적으로 목포 유·이민의 삶을 뚜렷한 사회의식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김윤진은 「『우리 오빠와 화로』 너머의 연대-『여성지우』와 엄홍섭을 중심으로」에서 잡지 『여성지우』와 1930년대 전반기 엄홍섭의 문학적 실천을 살핀다. 엄홍섭이 편집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지우』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듣고 독자 투고란을 대폭 늘리는 등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기획을 선보였다는 사실에 이 논문은 주목한다. 당시 독자들은 이러한 『여성지우』의 기획에 뜨겁게 호응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된 새로운 문학을 꿈꾸었는데, 그 하나의 예로 『여성지우』 〈여류문단〉란에 실린 여성들의 시가 임화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를 전유한 점을 든다. 또한 노동하는 여성들의 삶과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1930년대 초기 엄홍섭의 소설들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지우』 기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엄홍섭의 소설은 독자들이 서로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소로서 기능한다는 결론에 이 논문은 도달한다.

배상미의 「교차하는 계층질서가 만들어내는 ‘무지한 스승’의 급진적 서사: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캐롤라인 레빈의 『형식들: 문학도 사회도 문제는 형식이다』에서 소설에 나타난 형식들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 중 특히 계층질서에 주목하여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분석한 논문이다.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을 설명하는 계층질서 형식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궁극적으로 급진적인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결혼한 여성 혹은 유사 결혼한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계층질서가 그녀들의 연대의식 촉발을 가로막은 점, 옥점이가 원소에서 삶을 지키고자 선비와 간난이의 연대에 참여하지 못한 점, 선비가 스스로 깨우치고 가르치는 과정을 거쳐 성장하여 젠더와 자본주의의 계급질서를 방해하는 새로운 급진적 정치를 제시한 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은애의 「『화산도』의 여성주의적 독해-여성 목소리의 시작점과 합류점을 찾아서」는 여성인물의 의식에 주목해 『화산도』에 그려진 4·3을 새롭게 보고자 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화산도』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성인물, 투사 부역이, 혁명의 연대자인 이유원, 남성의 관념을 교란하는 문난설을 통해 4·3에서 여성들의 존재가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추궁하고 여성에 대한 『화산도』의 서사적 재현이 어떤 문제를 노정하며 4·3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능동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조명한다. 『화산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독해를 통해 ‘혁명’으로서 4·3의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젖히고자 시도한 작업이다.

강지운의 「국경(國境) 안과 밖의 여성들: ‘K-’의 근경과 한국의 가족주의」는 200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결혼이주 서사들과 『82년생 김지영』을 같이 읽으며, 한국의 외부와 연결된 다른 양상이 보여주는 변화를 신자유주의와 함께 작동해 온 한국 가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독해한 연구이다. 2000년대 중후반에 다수 창작된 결혼이주 서사는 한국 사회 결혼이주 여성의 현실을 조명한 작품들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결혼이주 서사를 소수자 재현 문학으로 한정하기보다 한국의 가족주의가 가진 문제성을 드러내는 서사로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아울러 『82년생 김지영』이 결혼이주 서사가 축소된 자리에 한국 사회의 ‘내부 식민자’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재등장시키면서 페미니즘의 동아시아적 확대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의 대중적 확대를 가져온 『82년생 김지영』의 성공이라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균열이라는 변화된 조건과 관련지어 읽어 보려는 문제의식이 돋보인다.

이혜원의 「걸그룹 노래 가사에 드러나는 타자화된 여성상 고찰」은 JYP 엔터테인먼트 걸그룹의 노래를 중심으로 걸그룹 노래에 드러나는 타자화된 여성상을 고찰한다. JYP 엔터테인먼트 걸그룹의 노래들에는 공통적으로 남성의 시선에서

대상화된 여성의 모습이 포착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가 수동적인 모습에서 주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는 학계의 연구 동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 걸그룹이 1960년대 남성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미국과 영국의 걸그룹 원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노래 가사가 남성 창작자의 시선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모습을 재생산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논문은 이러한 대중가요계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여성에 대한 대중들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바로잡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홍은영의 「소설 『작은 아씨들』(Little Women)의 번역 양상-여성 지칭어를 중심으로」는 Louisa May Alcott의 소설 『작은 아씨들』의 여성 지칭어와 관련된 표현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시중에 출판된 3종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일부 번역에서 지나치게 여성성(性)이 드러남을 확인함으로써 이 논문은 번역본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여성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원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성이 드러나는 번역이 오역이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변화한 사회와 그에 따른 언어와 언중의 변화를 번역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작은 아씨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읽히는 소설임을 감안할 때 변화한 사회 현실과 젠더 인식을 반영한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 번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여성문학 연구자가 해야 할 몫임을 환기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한영현의 「절멸의 공포와 탄생의 이중주: 재난 영화 속 여성 재현의 사회 문화적 함의」는 연상호 감독의 영화 「서울역」, 「부산행」, 「반도」에 재현된 여성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세 편의 영화에 재현된 ‘좀비’가 자본주의의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와의 윤리적 공모 속에서 여성을 ‘비-장소’에 내몰고 있다는 이 논문의 관점에 동의한다. 연상호의 영화에서 남성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시키려는 욕망과 함께 종말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면서 여성을 자본의 인큐베이터이자 희생되어야 할 먹이로 재현한다고 이 논문은 분석한다. 연상호의 세 편의 영화에서 여성은 포스트 대한민국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생산의 인큐베이터이자 생산하는 몸으로 여전히 폭력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우미영은 「트랜스휴먼의 형상과 변이로서의 신체」에서 김혜진의 단편소설 「비트루비우스 인간」과 이종산의 장편소설 『커스터머』에 나타난 신체 변형 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 논문은 두 편의 소설을 기술과학 문화 담론의 자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차원의 경계 교란이 인간의 신체 인식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신체 변형 서사로 읽고자 한다. 김혜진과 이종산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형상은 미래의 가능 영역에 존재하는 트랜스휴먼인 동시에 포스트휴먼이기도 하다고 이 논문은 분석한다. 특히 ‘비트루비우스 인간’과 ‘커스터머’가 기술기형과 돌연변이에 대한 너무도 인간적인 ‘우리’의 상상력 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현재적임을 지적하는 이 논문의 관점은 숙고할 만하다.

백종륜·임동현의 「퀴어 문학/비평의 독자는 누구인가: 『대도시의 사랑법』 수용자의 의미실천과 문화정치」는 독자들의 다종다양한 의미실천을 토대로 끊임없이 갱신되는 새로운 퀴어 문학 비평의 인식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이다. 최근의 문학장에서 독자는 기존의 낡은 문학을 쇄신하고 새로운 한국문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체로 호명되곤 했지만, 실제 독자의 독서 경험을 비평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동시대 퀴어 문학 비평이 상상하는 독자의 형상을 검토하고, 실제 독자에 대한 인식이 누락된 한국 문학장의 ‘독자 없는 독자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학제적 실험을 이 논문은 시도한다. 박상영의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독자들의 수용 양상과 그 문화정치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실제 독자들의 이질적인 ‘소설 읽기’를 경험하고 문학 텍스트를 통한 자기변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 논문의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독자’에 대한 비평의 사유와 ‘독자’의 비평적 개입이 한 차원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라·배은경의 「가족과 젠더를 넘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하기」는 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타난 돌봄의 양상을 검토하여, 가족과 젠더를 넘어선 돌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상가족’과 돌봄

책임의 젠더화된 분배를 당연시하고 돌봄자와 돌봄노동을 비가시화해 온 기존 상상력을 넘어서 보고자 시도한다. 두 편의 드라마를 오늘날의 돌봄 담론이 요청하는 탈가족화·탈젠더화·탈시장화된 돌봄의 형태를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로 읽으면서,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가족과 젠더를 넘어선 돌봄의 상상력이 처한 자리를 드러내고자 한 논문이다.

강소희의 「비동일적 여성 주체의 '회상'과 글쓰기」는 정세량의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 형성과정을 여성 신화 속 사이렌의 복원 과정과 겹쳐 읽고자 한 논문이다. 『시선으로부터』의 주인공 심시선을 근대성의 타자로서 포착해 오디세우스에 의해 타자화된 사이렌과 같은 위치에 놓인 인물로 독해한 것이다. 근대성의 동일화 기제에 포섭되지 않는 '비동일성'의 자아는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시대의 타자들에게, 더 나아가 후세대의 여성들에게까지 확장되는데, 이는 부정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에 필적하는 수필 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이 논문은 주목한다. 정세량이 '심시선'이라는 흥미로운 여성 주체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 소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사'라는 회상의 형식과 글쓰기의 의미를 분석한 논문이므로,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이 논문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 추천된 우수석사논문은 이지연의 「손소희 소설의 서발턴 여성 재현 연구」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손소희의 소설에 접근하여 '서발턴'으로서의 여성들이 소설 속에 재현되는 양상을 도출한 이 논문은 여성 작가의 글쓰기를 일관된 것으로 상정하는 '본질주의'에서 벗어나 그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스피박의 비평적 관점을 차용할 때 중요한 전략은 당대의 지배 질서와 교섭하며 살아가는 여성 인물들의 잠재적 정치성을 논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서사 텍스트의 재현 방식을 논한 제라르 즈네뜨의 서사이론 중에서 '초점화(focalization)'라는 개념을 분석틀로 도입해 손소희 소설의 다양한 초점화 전략과 그에 따른 서술 양상을 서발턴 여성의 재현이라는 문제와 연결지어 논의한다. 이 논문은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가시적으로 항거하거나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해도 여성의 삶을 지속시키는 사소한 움직임으로부터 저항의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역사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맥락과 불일치하는 여성들의 삶에서 어떤 착종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우리'

를 구성하는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는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이 질문을 문학사에 기입해 넣음으로써 손소희 소설은 여성 문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 논문은 도달한다. 손소희 소설이 서발틴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성실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이 논문이 새롭게 제기하는 질문이 여성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호 서평으로는 조연정의 『여성 시학, 1980~1990』에 대해 비평한 성현아의 「여성 없는 여성 시학에 반(反)하여」를 실었다. 성현아의 서평은 조연정의 지금까지의 여성시에 대한 일련의 저술 작업을 참조하면서 이 책을 1980~1990년대 여성 시인들을 다루고 있지만 2020년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자 다가올 미래를 여는 하나의 열쇠로 적극 의미화한다. 강남역 살인 사건, #문단_내_성폭력 말하기 운동, N번방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극심해진 젠더 폭력의 현주소를 돌아볼 때 여성성의 미학보다 여성의 현실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의 요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성현아의 서평이 『여성 시학, 1980~1990』의 미덕으로 페미니즘 이론이나 문학장에서의 화두가 아닌 여성이 처한 현실에서 글을 시작한다는 점을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현아는 조연정의 작업이 여러 여성 시인에 주목하며 그들의 개별시편을 세세히 살펴피기도 하지만, 그 작업을 엮어 최종적으로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문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길어 올리”고 있음을 통찰한다. ‘과잉여성화’와 ‘과소여성화’를 경계하며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기 어렵다는 이유로 젠더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던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해 재성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임을 포착한 것이다. 문학장 안에서 이야기되는 페미니즘과 ‘페미’라는 멸칭으로까지 전락해버린 현실 페미니즘과의 괴리를 상기해보면, 성현아의 판단처럼 조연정의 이 책이 제안하는 방향은 여성주의 문학이 나아갈 대안의 자리와 여성문학 연구자이자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정서적 위안과 연대의 자리를 열어준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서평을 통해 한 사람의 독자라도 더 『여성 시학, 1980~1990』의 책장을 열게 되길 희망한다.

『여성문학연구』 54호에 특집과 일반 논문을 합쳐 16편의 논문을 실을 수 있

게 되어 기쁘다. 추천석사논문과 서평까지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2021년을 보내는 마음이 조금은 뿌듯하다. 여성문학 연구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한국 사회 젠더 감수성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복잡하고 착잡한 마음이 든다. 현실은 여전히 지난하지만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우리는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넘어지거나 무너져 온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더 치열하게 말하고 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연대할 것을 다짐해 본다. 다가올 2022년은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기를 소망해 본다.

편집위원장 이경수

특집논문

여성, 신체, 테크놀로지

이희은	데이터화 사회에 여성은 존재하는가? : 알고리즘 미디어와 불평등	14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기획’과 80년대 ‘워킹맘’의 경계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46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77

일반논문

김민정	고전대하소설에 나타난 시비(侍婢)와 영웅적 여성인물의 관계성 고찰	110
서정자	식민지 근대도시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 : 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	153
김윤진	「우리 오빠와 화로」 너머의 연대 -『여성지우』와 엄홍섭을 중심으로	177
배상미	교차하는 계층질서가 만들어내는 ‘무지한 스승’의 급진적 서사 : 강경애의 『인간문제』	215
장은애	『화산도』의 여성주의적 독해 -여성 목소리의 시작점과 합류점을 찾아서	242
강지윤	국경(國境) 안과 밖의 여성들 -‘K-’의 근경과 한국의 가족주의	284
이혜원	걸그룹 노래 가사에 드러나는 타자화된 여성상 고찰 -JYP 엔터테인먼트 걸그룹을 중심으로	307

홍은영	소설 『작은 아씨들』(<i>Little Women</i>)의 번역 양상 —여성 지칭어를 중심으로	339
한영현	절멸의 공포와 탄생의 이중주 : 재난 영화 속 여성 재현의 사회 문화적 함의	363
우미영	트랜스휴먼의 형상과 변이로서의 신체 —김혜진의 「비트루비우스 인간」과 이종산의 『커스터머』	392
백종륜·임동현	퀴어 문학/비평의 독자는 누구인가 : 『대도시의 사랑법』 수용자의 의미실천과 문화정치	427
김미라·배은경	가족과 젠더를 넘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하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중심으로	491
강소희	비동일적 여성 주체의 ‘회상’과 글쓰기 —정세라의 『시선으로부터,』를 중심으로	532

추천석사논문

이지연	손소희 소설의 서발턴 여성 재현 연구	562
-----	----------------------	-----

서평

성현아	여성 없는 여성 시학에 반(反)하여 : 『여성 시학, 1980~1990』을 읽고	582
-----	---	-----